

국내 성인의 인터넷 이용 행태 및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 획득 현황에 대한 고찰

An Investigation of Internet Usage and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by Internet of Domestic Adults

조경원
춘해대학

Cho Kyoung-Won
Choonhae College

요약

국내 성인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와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의 획득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성인남녀 47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의 이용 행태와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의 획득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결과를 기존에 조사되어 발표된 통계 결과들과 비교 분석하여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차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통계 결과들은 향후 인터넷 건강정보 웹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의료콘텐츠의 주된 목표 대상, 주된 목표 내용의 선정과 홍보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 서론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97년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9,600만 명, 1998년 1억 4,000만 명에서 2004년 약 6억 9,0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9년에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4년 말에는 3,100만 명을 넘어서 인터넷의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1]. 또한, OECD가 2005년 5월에 발표한 회원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발표자료에 의하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인구 100명당 24.9명으로 4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관리, 전달 및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식정보사회를 촉진하는 등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들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3].

이 논문에서는 올바른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방안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 건강정보 이용 행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건강정보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설문 내용은 소비자 건강정보 이용 행태 및 이용 시 사이트 선택 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일반 사항 5개 문항, 건강 사항 4개 문항, 인터넷 이용 형태 5개 문항, 소비자 건강정보 이용 형태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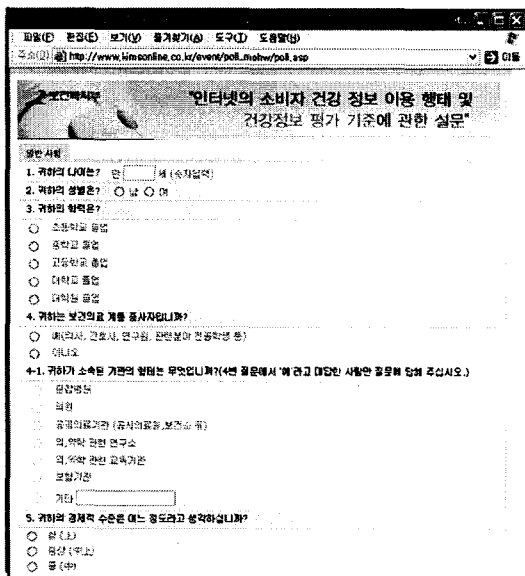
II. 설문 조사

이 논문에서 실시한 설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사항으로 연령, 성, 교육수준, 직업, 경제수준에 대해 조사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건강 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상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용장소, 이용시간, 이용 정보, 이용통로, 건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하여 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5년 9월16일부터 9월25일까지 10일간 보건복지부 관련 보건의료정보제공 사이트(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등)를 통해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웹 설문형태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476명이 응답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건강 길라잡이' 사이트에 설문을 위한 배너화면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실시된 온라인 설문지의 화면 예는 그림 2와 같다.



▶▶ 그림 1. 설문 조사 배너 화면



▶▶ 그림 2. 설문 화면

III. 인터넷 건강정보 소비자 설문 결과

1. 일반 사항

소비자 조사 대상자 전체 응답자 476명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세 미만이 47명(9.9%), 20-29세가 311명(65.3%), 30-39세가 73명(15.3%), 40세 이상이 45(9.5%)으로 20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 123명(25.8%), 여성 353명(74.2%)이 응답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39명(71.2%)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86명, 대학원 졸업이 51명(10.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보건의료계통 종사자가 183명(38.4%), 일반인이 292명(61.6%)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258명(54.2%)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인터넷 건강정보 소비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기술 통계량

변수	구분	수	%
연령	20미만	47	9.9
	20-29	311	65.3
	30-39	73	15.3
	40이상	45	9.5
성별	남	123	25.8
	여	353	74.2
학력	고등학교 졸업	339	71.2
	대학교 졸업	86	18.1
	대학원 졸업	51	10.7
보건의료 계통 종사자	보건의료 계통 종사자	183	38.4
	일반인	293	61.6
소속된 기관의 형태	의약학 관련 교육기관	92	50.5
	종합병원, 의원, 공공의료기관, 연구소	36	19.8
	기타	54	29.7
경제적 수준	상, 중상	40	8.4
	중	258	54.2
	중하, 하	178	37.4
계		476	100.0

2. 건강 상태

건강 상태는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9명(6.1%), '건강하다'가 157명(33%)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51명(10.7%)보다 3배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건강 관심 정도는 '관심이 많다' 196명(41.2%), 보통이 205명(43.1%)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 건강상 문제 유무는 126명(26.5%)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족 건강상 문제 유무는 204명(42.9%)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

[표 2] 인터넷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사항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수	구분	수	%
건강 상태	아주 건강하다.	29	6.1
	건강하다.	157	33.0
	보통이다.	229	48.1
	건강하지 못하다.	51	10.7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0	2.1
건강관심 정도	관심이 아주 많다.	41	8.6
	관심이 많다.	196	41.2
	보통이다.	205	43.1
	관심이 적다.	25	5.3
	관심이 전혀 없다.	9	1.9
본인 건강상 문제 여부	있음	126	26.5
	없음	350	73.5
가족 건강 문제 여부	있음	204	42.9
	없음	272	57.1

3. 건강정보 이용 행태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는 표 3과 같다. 인터넷 이용 장소는 주로 집에서 이용하는 응답자가 333명(70%)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5시간이상 48명(10.1%), 3-5시간 정도 79명(16.6%), 1-3시간 정도 237명(49.8%), 1시간미만 112명

[표 3] 인터넷 건강정보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 행태에 대한 기술 통계량 (* : 중복응답)

변수	구분	수	%
인터넷 이용 장소	집	333	70.0
	직장(또는 학교)	123	25.8
	PC방	20	4.2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미만	112	23.5
	1-3시간 정도	237	49.8
	3-5시간 정도	79	16.6
	5시간 이상	48	10.1
이용 인터넷 정보 *	컴퓨터 관련(S/W, H/W, 네트워크 등)	70	14.7
	오락(게임, 채팅 등)	202	42.4
	뉴스(신문, 잡지, 방송 등)	200	42.0
	건강, 의학(병원, 질병, 의약품 등)	52	10.9
	학술, 교육(외국어 등)	65	13.7
	생활, 취미(쇼핑, 여행, 스포츠 등)	236	49.6
	비즈니스(아트바이트, 증권 등)	22	4.6
	사회, 문화(동아리, 사회단체)	65	13.7
	기타	18	3.8

[표 4] 소비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획득에 대한 기술 통계량 (* : 중복응답)

변수	구분	수	%
건강정보 획득 방법*	방송 매체(TV, 라디오)	194	40.8
	문자 매체(신문, 잡지, 책자)	86	18.1
	인터넷	316	66.4
	저인(가족, 친구 등)	88	18.5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56	11.8
	기타	3	0.6
인터넷 건강정보 획득 경로	검색 사이트 이용	390	81.9
	병원 홈페이지 방문	25	5.3
	보건 의료 포털 사이트 방문	28	5.9
	링크를 통한 건강정보 사이트 방문	29	6.1
	기타	4	0.8

(23.5%)으로 나타났다.

4. 건강정보 획득 방법 및 경로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건강정보 획득 방법 및 경로는 표 4와 같다.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인터넷 316명(66.4%), 방송 매체(TV, 라디오)가 194명(40.8%)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검색 사이트 이용이 390명(81.9%)으로 링크를 통한 건강정보 사이트 방문이나 보건 의료 포털 사이트 방문 등에 의한 것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IV. 고찰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 들이 건강정보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 행태, 인터넷 건강정보 획득 방법 및 경로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빈도에서 4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장 적

었으며 여성이 74.2%를 차지하고 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는 보통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 이용자 4,764명을 대상으로 한 Baker 등의 연구[4]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과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젊은 사람에 비해 적게 이용하며, 남성이 여성의 반 정도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수입에는 거의 관련이 없었으며 건강 상태에 있어서는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인터넷 건강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설문 대상자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5시간 이상인 응답자가 48명(10.1%), 3-5시간 정도가 79명(16.6%), 1-3시간 정도가 237명(49.8%), 1시간미만이 112명(23.5%)으로 1-3시간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8월에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5]에서는 평일 주말의 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8시간으로 동일하나 직장인은 평일(일평균 2.1시간), 학생은 주말(일평균 2.0시간)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95.6%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

용하고 있으며 PC방 등 상업적 공공시설 및 회사 직장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22.7%, 학교에서의 이용은 13.6%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이 논문에서 실시한 인터넷 건강정보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 장소 조사에서는 집이 333명(70%), 직장 또는 학교가 123명(25.8%), PC방 등 상업적 시설이 20명(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정보화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05년 8월 보고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컴퓨터 보유 가구는 78.5%이며 유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는 73.4%였다.

또한 컴퓨터 보유가구 기준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가 93.6%로 가정 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집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에 따른 오프라인 생활 변화로 인터넷 이용자의 30% 이상이 수면시간,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 인터넷으로 주로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9가지 분류의 질문에 대하여 쇼핑, 여행, 스포츠 등의 생활, 취미에 관련된 정보가 236명(49.6%), 게임, 채팅 등의 오락에 관련된 정보가 202명(42.4%),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뉴스에 관련된 정보가 200명(42%), S/W, H/W, 네트워크 등의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가 70명(14.7%), 외국어 등의 학술, 교육에 관련된 정보가 65명(13.7%), 동아리, 사회단체 등의 사회, 문화에 관련된 정보가 65명(13.7%), 병원, 질병, 의약품 등의 건강, 의학에 관련된 정보가 52명(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Michael이 2005년 7월에 발표한 자료[6]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인터넷 활용 통계 분석 결과, 뉴스(73%), 건강과 운동(66%), 교육(45%), 취업(44%), 게임(32%), 종교(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경우 건강, 운동,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이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국내 성인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와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의 획득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성인남녀 47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설문자들의 일반 사항,

건강 상태, 건강정보 이용 행태, 건강정보의 획득 방법 및 경로에 대한 다양한 통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결과들 중 응답자들의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과 인터넷 이용 현황에 대한 통계 결과를 국외 및 국내에서 조사된 다른 통계 결과들과 비교 분석하여 결과의 의의를 해석하고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통계 결과들은 향후 인터넷 건강정보 웹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의료콘텐츠의 주된 목표 대상, 주된 목표 내용의 선정과 홍보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시된 통계 결과들이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웹 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지침 및 홍보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참고 문헌 ■

- [1] <http://isis.nic.or.kr>
- [2] OECD Broadband Statistics, 2005(<http://www.oecd.org>)
- [3] 최혜영,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4] Baker C., Wagenr H., Singer J., and Bundorf K., "Use of the internet and E-mail for Health Care Information." JAMA, Vol.289, pp.2400-2405, 2003.
- [5] 송관호,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 [6] Michael K., "Likelihood of Teen and Adult Engagement in Online Activities," 2005(<http://www.clickz.com>).